

“피의 빛 값을 것”...홍콩시위 다시 불붙나

경찰 쏜 실탄 맞고 고교생 중상 국경절 충돌...180명 체포 학생들 긴급 동맹휴학 경고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을 맞아 홍콩에서 벌어진 '국경절 애도 시위' 도중 한 시위 참가자가 경찰이 쏜 실탄에 가슴을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에 홍콩에서 벌어진 '애도 시위'에서 18세 고등학생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중상을 입으면서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 반대 시위가 다시 격화할 조짐을 보인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전날 시위에 참여했던 고등학생이 경찰과 충돌했다가 총에 맞았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홍콩 시위대는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전날 환안 지역에서는 경찰에 쇠파대기를 휘두르던 시위 참여자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등학교 2학년의 18세 남학생으로 확인된 이 시위 참여자는 병원에서 탄환 적출 수술을 받았다.

6월 초 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후 시위 참여자가 경찰의 실탄에 맞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 시위대는 전날 경찰의 총격을 '피의 빛'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반드시 값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시위 때마다 최전선에서 싸운다는 랍 씨는 "시위대가 무력 사용의 강도를 높이며 라도 더는 불만을 나타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실탄을 사용한 것은 바로 경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대 중 한 명인 20대 장 씨는 "지금껏

폭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평화를 주장하는 동료들에 의해 가로막혔지만, 이제는 폭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우리로 두렵지만 다른 길이 없다"고 말했다.

홍콩 시위의 주역인 조슈아 웬 데모시스트당 비서장은 전날 고등학생에게 실탄을 쏜 경찰을 '살인자'라고 비난하면서 "홍콩은 이제 사실상의 경찰국가가 됐으며, 전 세계가 이 야만적인 체제에 맞서 결연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범민주 진영 의원 24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경찰이 고등학교 2학년생에게 근거리에서 총을 쏜 것은 정당방위를 넘어선 공격 행위"라며 "경찰은 시위대는 물론 의료진, 기자, 사회복지사 등을 야만적으로 다뤘었다"고 비난했다.

이번 사건으로 지난날 4일 캐리 램 행정

장관의 송환법 공식 철회 발표 후 기세가 꺾였던 시위 사태가 다시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등학생 피격 소식이 전해지자 홍콩 중 고등학생 조직들은 2일부터 긴급 동맹휴학에 들어갈 것을 호소했다.

전날 총상을 입은 고등학생인 청즈젠이 다니는 환안 지역의 호천위 중등학교 재학생과 시민 400여 명은 이날 오전 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광복홍콩, 시대혁명', '5대 요구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홍콩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이다.

고교생 총상을 불러온 전날 시위는 지난 6월 초부터 시작된 송환법 반대 시위 중 가장 격렬한 충돌이 발생한 시위로, 각종 신 기록을 양산했다.

전날 시위로 인해 체포된 사람은 180명 이상으로, 지난달 29일 시위 때 146명을 훌쩍 넘어 송환법 반대 시위 시작 후 최대 체포를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시위 때 체포된 사람 중 96명은 폭동죄로 기소됐는데, 전날 체포된 시위대 중 기소되는 사람의 규모도 이에 못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에서 폭동죄는 최고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전날 시위로 인한 부상자도 74명에 달해 전례가 없는 수준이었다. 가장 나이가 어린 부상자는 11살, 최고령 부상자는 75살이다. 이 가운데 2명은 위중한 상태이다. 경찰도 25명이 다쳤다.

시위대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경찰은 고등학생을 쏜 1발을 포함해 경고사격 5발 등 총 6발의 실탄을 발사했다. 이전에도 실탄 경고사격은 있었지만, 이처럼 많은 실탄이 발사된 적은 없었다.

전날 시위가 격화하자 홍콩 지하철공사도 시위가 발생한 지역의 지하철역을 모두 폐쇄했다. 전체 91개 역 중 절반이 넘는 47개 역이 폐쇄됐는데, 이 또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전날 시위는 코즈웨이베이, 완차이, 애드머럴티 등 도심은 물론 웬타이신, 사틴, 환안, 툴만, 아우마테이, 노스포인트 등 홍콩 전역의 총 13곳에 이르는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연합뉴스

10년간 美은행 일자리 20만개 로봇이 대체 자동화 과정 감원 규모 예측...운영비 절반 인건비 절감

블룸버그통신 보도

미국 은행업계에서 향후 10년간 20만개의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금융기업인 웰스파코 증권사의 마이크 메이오 수석 애널리스트는 "미국 금융기업들이 기술 부문에 연간 1천500억 달러(약 180조원)를 투자하고 있다"면서 "이는 은행 운영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건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이오 애널리스트는 현재 은행 임원진 및 컨설팅 업체와 함께 은행 자동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원 규모를 예측하는 작업에 참여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내 지원 부서(백오피스), 지점, 콜센터 등의 직원 수는 5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감원됐으며, 기술과 영업, 상담, 컨설팅 관련 직군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티칸 경찰, 교황청 핵심기구 첫 압수수색

"금융 관련 부정 조사"

교황청 관료 조직의 심장부로 꼽히는 국무원과 교황청 금융감독 기구인 금융정보보장(AIF) 등 교황청 핵심 기구가 전격 압수수색 당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통신은 바티칸 경찰이 1일(현지시간) 국무원과 AIF에 들어닥쳐 내부에 보관돼 있던 자료와 전자 기기 등을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교황청은 성명을 내고 이번 수색은 금융 관련 부정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지난해 여름 교황청 은행과 교황청 감사원이 제기한 고소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회계·컨설팅 기업인 딜로이트의 금융 서비스 혁신 부서를 이끄는 마이클 탕은 "고객 응대 부서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미 온라인 '챗봇'에서 그러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어떤 고객들은 그들이 인공지능(AI)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제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도 지난 5월 금융 업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 여겨졌던 은행원과 증권 거래원 등 프론트 오피스 직원의 수가 로봇으로 인해 3분의 1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골드만삭스 그룹의 R. 마틴 차베스는 모든 은행업계 종사자들이 웰스트리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코딩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국무원과 AIF가 금융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색 대상이 된 것은 사상 처음으로 파악된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국무원은 교황청 관료조직과 외교 등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으로, 13억 신자를 거느린 가톨릭의 본산 교황청 부처 중 가장 힘이 센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AIF는 교황청 내 모든 부처에 대한 재정 감독권을 지니고 있는 기관이다. 교황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연합뉴스

美 엘로스톤 공원에서 40대 남성 온천에 빠져 중화상

미국 와이오밍주(州)의 엘로스톤 국립공원에서 48세 남성이 온천에 빠져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CNN 방송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립공원관리청(NPS)은 지난달 29일 밤 케이트 에드먼드 시머스가 이 공원의 울드 페이스폴 간헐천 인근에서 손전등 없이 판자를 깔아놓은 길을 벗어나 산책하다가 발을 헛디뎠다. 온천에 빠졌다고 밝혔다.

NPS는 "열수(熱水)가 나오는 지역의 지반은 연약하고 얇다. 또 표면 바로 아래에 뜨거운 물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머스는 다행히 온천에서 빠져나와

그가 머물던 인근의 여관으로 돌아왔고 자정께 구조요청 전화를 했다.

공원 관리인들은 당시 시머스가 숲을 마신 것 같다고 생각했고, 나중에 간헐천 인근에서 맥주 캔을 발견했다. 인근에서는 시머스의 신발 한짝과 온천으로 들어갔다 나온 그의 발자국도 함께 발견됐다.

시머스는 구급대에 의해 서부 엘로스톤 공원으로 옮겨진 뒤 비행기를 타고 동부 아이다호 지역의료센터의 화상센터로 가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위중한 상태라고 CNN은 전했다. /연합뉴스

대만 교량 붕괴 사고 현장 사망자 4명 수습...실종 2명

대만 북동부에서 붕괴된 다리에 깔린 선박에 갇힌 것으로 추정됐던 6명 중 4명의 시신이 2일(현지시간) 오전 수습됐다.

대만 소방당국에 따르면 시신 2구는 다리에 깔린 선박 부근의 수중에서, 다른 2구는 심하게 부서진 다른 선박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AP·AFP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수습된 2명은 인도네시아인이고 다른 1명은 필리핀인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해안경비대와 군 당국은 무너진 구조물 아래 선박에서 6명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색·구조활동을 벌여왔다.

린자롱 대만 교통부 장관은 수색 및 구조작업이 계속될 것이며 교량 붕괴 원인을 밝힐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9시 30분께 이란현 난팡아오 항구 선착장 위 140m 길이의 단일 아치형 다리가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실종되고 12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대만 북동부 이란현 난팡아오 항구에서 1일 선착장 위의 아치형 다리가 붕괴돼 구조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상담 062) 945-0036~7

모던스타일 Modern!



클래식스타일 Classic!



지중해스타일 Mediterranean Sea!



